

제61회(2024년) 변리사 1차 민법개론 총평

수험생 여러분들 시험 치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. 이번 민법 시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것 같아 총평을 먼저 올려드립니다. 개개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은 추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공하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1. 난이도

작년 60회 민법개론 시험보다는 조금 쉬웠고 재작년 59회 민법개론 시험보다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출제자가 맞추라고 주는 문제의 비중이 높았다는 점에서 작년보다 조금 쉬웠고, 대신 변별력을 주고자 한 문제는 꽤나 어려웠다는 점에서 59회보다는 조금 어려웠다고 판단됩니다. 1년 동안 꾸준히 민법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약 75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 이상의 점수를 받기는 만만치 않은 시험이었던 것 같고, 특히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하는 것은 조문부터 판례까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있어야만 가능했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난이도 측면에서는 이번 시험의 난이도 조절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제가 이번에 좀 어려웠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은 3번, 12번, 14번, 25번 정도였습니다. 물론 난이도는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.

2. 조문의 중요성

아직 올해 시험에서 판례지문과 조문지문의 비중이 얼마씩인지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문제를 검토한 직후 바로 든 느낌이 조문의 중요성이었습니다. 조문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만 정확하게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제가 최소한 3~4문제 이상이었고, 특히 이 문제들이 출제자가 변별력을 주기 위해 조문을 활용했다는 느낌이 든 문제들이었습니다. 작년에 최신판례와 어려운 판례를 가지고 변별력을 주려고 했다면 올해는 조문을 가지고 변별력을 주려고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조문이 당락여부를 가를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. 혹시 문제를 풀 때의 생각보다 많이 틀렸다고 느끼신 분들은 조문의 디테일을 놓친 것은 아닌지 한 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.

3. 생소한 지문들

이번 시험의 또 하나의 특징이 기존 기출지문에 없는 지문들이 많이 출제되어 문제를 풀 때 생소한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다는 점입니다. 기출문제만 풀어서는 고득점 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작년 시험부터의 추세라고 보여집니다. 이렇게 생소한 지문들이 많이 출제되었을 때 수험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하는지 혼란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기본강의 때부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도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이런 문제의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그 생소한 지문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드립니다. 즉 출제자가 5개의 지문을 모두 생소한 지문으로 구성할 수는 없고, 보통 5개 지문 중 1개, 많으면 2개 정도 생소한 지문을 끼워 넣는데, 나중에 검토해보면 아시겠지만 그 생소한 지문을 몰라도 정답지문, 나머지 지문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풀리는 문제가 대다수입니다. 결국은 출제자의 의도도 그 생소한 지문을 아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지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. 기본기가 잘 되어있는 수험생들은 생소한 지문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습니

다. 다른 지문을 보고 충분히 정답을 골라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반면에 기본기가 약한 수험생들은 생소한 지문을 만나고 다른 지문에서 혼동되는 지문이 있으면 시험 전체가 어렵게 느껴지고 패닉상태에 빠져 실력 차이보다 점수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.

4. 복수정답 여부

아직은 복수정답이 인정될 만한 것으로 보이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 구체적으로 해설을 달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5. 맺으며

사실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이번 시험을 치르고 점수가 좀 부족하여 어떻게 하면 민법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것입니다. 우선 오늘 시험지 쳐다보기도 싫으시겠지만 나중에 상세 해설이 나오면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, 어떻게 공부하면 틀린 문제를 맞출 수 있을지 반드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. 검토해보시면 의외로 생소한 지문 때문에 틀린 문제는 별로 없고 조문이나 기본적인 판례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틀린 문제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. 시험의 경향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. 저는 매년 시험을 대리 경험하지만 시험의 경향이 어떻든 간에 기본기가 잘 되어있는, 기본적인 조문과 판례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시험장에 가는 수험생들이 결국 고득점한다는 점을 매년 경험하고 있습니다. 기본서를 봐야하는지 객관식을 봐야하는지 등의 논의도 많은 것 같은데, 기본서나 객관식이나 모두 조문이나 판례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. 기본서든 객관식이든 손때가 묻도록 봐서 푼 치면 나올 정도로 연습하는 것만이正道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. 건투를 빕니다.